

研究論文

조선 전기의 단군묘(檀君墓) 인식

김성환*

- | | |
|------------------------------|--------|
| I. 머리말 | V. 맺음말 |
| II. 『응제시(應製詩)』 유형 전승과 단군묘 | <참고문헌> |
| III. 『동국여지승람』의 단군 기록과 단군묘 | <국문요약> |
| IV. 『표제음주동국사략』에서의 단군 자립과 단군묘 | |

I. 머리말

현전하는 고조선의 건국시조 단군에 대한 전승의 내용은 다양하다. 그중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고기 유형의 전승은 최고의 것이자 현전하는 자료 중 고조선 건국신화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도 폭넓게 이해되고 있는 전승 유형중 하나이기도 하다. 단군전승은 고조선 멸망이후 후대로 전해지면서 사회와 문화의 제반 변화에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지속적으로 또 다른 새로운 전승을 창출했다.

이 같은 변화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제반 전승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해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각 유형의 전승에서 개별 요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읽어내는 방법이다. 환웅과 웅녀의 결합 또는 단웅천왕과 단수신 손녀의 결합에 의해 단군

*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한국사 전공(sunghwangim@yahoo.co.kr).

이 태어났다는 비합리적이면서 신비스러운 내용을 담은 『고기』·『본기』 유형 등의 전승은 이후의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역동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모습으로 내용을 전개해갔다.

유형별 이해에서 『제왕운기』·『응제시』·『동국여지승람』·『제대조기』 등의 유형이 다시 등장했고, 내용별 이해에서 아들로서의 부루와 주몽 전승, 우의 도산 조화에 태자 부루의 파견 전승, 세 아들의 삼랑성 축성과 참성단에서 단군의 제천 전승, 『삼국유사』의 1908세라는 단군의 나이를 고조선의 역년으로 해석한 권근의 이해 등 치세와 후계에 대한 전승이 등장했다. 이 같은 내용 전승에 대한 분석적 이해는 다양한 갈래의 단군전승을 상세히 검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은 당연하다. 또 여러 유형과 내용을 신고 있는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을 적절하게 병행할 필요가 있음도 물론이다.

강동현의 단군묘(檀君墓) 전승 역시 이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단군묘 전승은 제반 전승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단군의 최후와 관련한 것이다. 단군의 최후에 대해 우리는 『고기』·『본기』 유형의 아사달산신으로의 좌정에 익숙해있다. 이는 신인(神人)으로서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강동현의 전승은 신격으로서 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으로의 전승을 보여준다. 여기서 단군전승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고가 반영되어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1993년 단군릉 발굴 이후, 북한은 출토 인골의 연대측정 결과를 역사적 사실로 수용하면서 고조선 및 단군과 관련한 모든 역사서술과 인식체계를 이를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것은 단순히 단군묘와 관련한 전승을 둘러싼 남북의 이해 차이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인식체계에서 커다란 괴리를 가져왔다.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의 새로운 과제를 야기했다. 특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체제의 현실에서 통일의 지향을 염두에 둘 때,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남북 역사인식의 차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최선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이해를 전제로 조선 전기 강동현의 단군묘 전승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¹⁾ 먼저 조선 건국직후부터 조선시대 전승의 전형으로 등장

1) 고려시대와 조선후기의 단군묘 인식과 관련해서는 김성환, 「檀君傳承과 檀君墓: 고려시대 단군묘 전승에 대한 가능성 모색」, 『역사민속학』, 29(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김성환, 「조선 후기의 단

한 『응제시』 유형과 단군묘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 유형은 이전의 유형보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단군을 이해하려고 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단군묘 전승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단군묘 전승이 처음 보이는 『동국여지승람』에서 단군과 관련한 기록을 분석하여 그 편찬자들의 단군인식을 정리한 후, 이곳에서의 단군묘 기록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세종실록』 지리지의 황제묘(皇帝墓) 기록이 채록과정에서 오류로 단군묘 전승을 누락시키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 조선 전기 사서로서는 처음으로 단군묘 전승을 단군의 최후로 적극 인식하고 있는 유희령(柳希齡)의 『표제음주동국사략(標題音註東國史略)]을 통해 ‘단군자립(檀君自立)’의 항목에서 단군묘가 지니는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고조선 역사를 단군을 중심으로 연대기적인 방법으로 이해한 현전하는 최고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의 단군묘 전승에 대한 이해의 모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응제시(應製詩)] 유형 전승과 단군묘

단군의 출생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별 분류에서 『응제시』 유형은 1396년(태조 5) 권근(權近, 1352~1409)이 명나라 고황제에게 제진한 응제시중 하나인 「시고개벽동이주(始古開闢東夷主)에 대한 주석이다.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이해되었던 자료이다. “옛날에 신인(神人)이 단목(檀木) 아래로 내려왔는데, 나라 사람들이 세워 왕을 삼은 까닭에 단군(檀君)으로 불렸으며, 이때는 요임금의 원년인 무진년이였다”는 내용의 주석을 전제하고, “아주 오랜 전에 단군이 수풀로 내려와 동국(東國)의 임금이 되었는데 전하는 세대는 알 수 없지만 역년은 천여 년을 넘었다”고 읊고 있다.²⁾

고려 말 변안열(1334~1390)의 「동국유거음(東國留居吟)」이라는 시에서도 ‘단목(檀木)’이라는 표현이 있음을 볼 때,³⁾ 이 같은 유형이 고려시대에도 전해지고 있

군묘 인식, 『단군학연구』, 18(단군학회, 2008) 참조. 일제강점기 단군릉수축운동과 관련해서는 김성환, 「일제강점기 「단군릉기적비」의 건립과 단군전승」, 『사학연구』, 86(한국사학회, 2007) 참조.

2) 『양촌집』 권1, 시, 「命題十首 始古開闢東夷主[昔神人降檀木下 國人立以爲主 因號檀君 時唐堯元年 戊辰也]」 “聞說鴻荒日 檀君降樹邊 位臨東國土 時在帝堯天 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 後來箕子代 同是號朝鮮.”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응제시』 유형은 조선시대에 보편적으로 이해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인 듯하다. “신인(神人) 단군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서 출흥(出興)하여 시조왕이 되었다”는 임진왜란 직후 승려 휴정(休靜, 1520~1604)의 서술은 고조선 시조로서의 단군에 대한 접근에 보다 구체적이다.⁴⁾ 여기에서는 단군의 최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삼국유사』에서 단군의 나이로 기록되어 있는 1908세나 어국(御國) 1500년, 『제왕운기』에서 향국으로 언급되고 있는 1028년 또는 1038년과는 달리 세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전한 세대로 이해하고 있음에서 고려시대보다 진전된 인식론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응제시』 유형의 자료들은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고기』 등의 고려시대 전승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 이 유형을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단군의 최후를 아사달산신으로의 좌정으로 기록하면서 『고기』 또는 『본기』 유형을 함께 소개하고 있음에서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 단군전승의 주류가 『고기』·『본기』 유형에서 『응제시』 유형으로 바뀌었고, 『고기』 유형은 『응제시』 유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단군의 최후가 죽음과 묘의 조성으로 마무리된 단군묘 전승은 그 형성 시기와는 별개로 역사적 존재로서의 단군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진 시기에 주목이 가능했고, 이런 점에서 『응제시』 유형의 전승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⁵⁾

특히 고조선의 시조 단군이 국조로 자리하여 역사적 위상을 되찾으면서 출생에 대해 황탄한 전승을 전하던 『고기』·『본기』 유형의 전승은 식자층에게 합리적인 인식의 틀에서 비판되기 시작했다. 대부분 『고기』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비판은 조선 후기의 것이기는 하지만, 환웅이 신시(神市)를 열었다는 것이 역사에서 확인할 수 없어 탄망한 설이라는 홍경모(洪敬謨, 1774~1851)의 이해나,⁶⁾ 꿈이 여자로 변해 아들을 낳았다는 설이 황탄하여 기록하지 못하겠다는 오광운(吳光運, 1689~1745)의 이해,⁷⁾ 단군전승을 염두에 두고 동사(東史) 대부분의 기록은 탄망하여 많은 사람들

3) 『대은선생실기』, 시, 「東國留居吟」 참조.

4) 『해동금석원』 보유 권6, 「明高麗釋迦金骨舍利浮圖碑」(1603) “...我東方初無君長 不列諸侯 神人檀君 出興於太白山神檀樹下 爲始祖王 與堯並立也...”

5) 김성환, 「조선시대 단군묘에 관한 인식」, 『한국사학사학보』, 13(한국사학사학회, 2006) 참조.

6) 『관암전서』 권19, 記, 「三聖祠記」 “...史云 神人降于檀木下 國人立爲君 號檀君 盖有神市之事而史不言歟 史既不言 則直一迂怪誕妄之說 何爲而信之...”

이 불신하고 있다는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언급⁸⁾ 등은 이점에서 유효하다. 다만 선가사가(仙家史家)로 분류되기도 하는 홍만중(洪萬宗, 1643~1725)만 단군이 단목 아래로 내려왔다가 마지막에는 신이 되었다는 설이 탄만하기는 하지만, 단군은 동방이 홍황(洪荒)했던 시대에 있던 수출(首出)의 군주로 많은 이적(異蹟)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망론(妄論)이라고 할 수 없다고⁹⁾ 변론하고 있다.

아사달산신으로의 좌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역시 같은 범주에서 취급되었을 수 있다. 위의 홍만중의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다. 삼국의 시조묘(始祖廟) 조성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시조를 신성하게 분식하기 위해 신격화하는 것이 고대국가 이래 일반적인 예이다. 그러나 산신으로의 좌정에서는 더 이상 건국시조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역사적 기능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사달산신으로의 좌정은 일부 전승집단에 의해 비판되었을 것이고, 이 같은 비판은 보다 합리적인 전승의 이해를 위한 결과를 낳게 했다. 단군묘 전승은 이런 배경에서 연유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건국시조들이 모두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와 산신이 되었듯이 산신과 건국시조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¹⁰⁾ 신라 시조 혁거세의 어머니가 선도산신인 선도성모였다는 전승,¹¹⁾ 고려 왕실과 연계되어 왕건의 고려 건국을 예언했다는 지리산신인 지리산신모, 가야의 건국과 관련한 정견모주 등에서 건국 시조와 산신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¹²⁾ 하지만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산신의 대부분은 그 시

7) 『약산만고』 권5, 시, 「海東樂府-太伯檀」, “…至若熊化爲女昏而生子之說 尤荒誕不并記”

8) 『동사강목』 附 권상, 「考異」 “…中國史所記 與東史略同 但東史太涉誕妄 故人多不信 而歸之恍惚存亡之間 則不可.”

9) 『동국역대총목』, 「단군조신」 “…中國史所記 與東史略同 第東史所謂降于檀木下 終化爲神等說 似涉誕謾 然檀君首出御世 在東方則乃洪荒之世也 邃古之事 固多異蹟 故今不敢妄論 一從史書.”

10) 임재해, 「산신설화의 전승양상과 산신숭배의 문화」, 『비교민속학』, 29(한국비교민속학회, 2005), 392쪽.

11) 『삼국유사』 권5, 감통7, 「仙桃聖母隨喜佛事」 참조.

12) 이에 대해서는 박씨의 내력을 설명하는 가운데 단군 이하 삼국 건국시조의 출생담을 설명하고 있는 朴壽春(1572~1652)의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국담집』 권2, 序, 世系事實序 “朴氏之先 盖出於新羅始祖赫居世 先是朝鮮遺民 分居東海濱爲六村 而無君長 漢宣帝地節元年壬子 六村長俱會於關川上 高墟村長蘇伐公 望見揚山麓蘿井傍 林間有異氣 且有白馬跪拜狀即觀之 馬忽不見 有一大卵 剖得嬰兒 形儀端美 浴於東川 身生光彩 鳥獸率舞 六部人以其生神異 收養之 及年十三 屹巖夙成立爲君 赫居世鄉言王也 號居西干亦方言尊長之稱 其即位元年實漢宣帝五鳳元年甲子 辰人謂瓠

조의 조력자이지 주인공은 아니었다. 산신들은 건국시조를 직접 출생하거나 건국을 예언한다든지 등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직접 건국을 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이들과 단군의 위치는 분명 다르다.

단군 역시 처음부터 산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가 하늘에서 단목으로 상징되는 수풀로 내려와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응제시』 유형에서는¹³⁾ 산신으로의 성격을 엿볼 수 있겠지만, 고려시대의 전승 유형이었던 『고기』·『본기』·『제왕운기』 유형에서는 그의 부계 혹은 모계가 산신적인 성격과 연결되어 있었을지언정 그 자체가 산신은 아니었다. 고조선 건국에서 산신은 어디까지나 조력자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에서 단군은 아사달로 환은(還鰐)하여 산신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제왕운기』의 『본기』에서는 ‘환은’이 ‘입(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르지 않다. 그의 최후가 부계나 모계와 같은 성격으로 귀결된 것이다.

하지만 신인(神人)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사람들에 의해 추대되어 왕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전승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그의 최후로서 아사달산신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었다. 『고기』 유형의 전승이 『응제시』 유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선시대에 유효했다고 하더라도 국조로의 위상으로 아사달산신은 적합하지 못했다. 이첨(李詹, 1345~1405)의 이해는 이런 점에서 유의할 수 있다.

爲朴 以大卵如瓠 以朴爲姓 王有神德 在位六十一年 立闕英爲妃 初龍見於闕英井 右脇生女 有老嫗 養之 以井名名之 及爲妃能內輔 人稱二聖 或云 古有仙桃聖母 本中國帝室之女 名婆蘇 早得神仙之術 來止海東 久而不返 遂爲神 世傳赫居世乃聖母之所誕也 故中國人讚 有仙桃聖母娠賢肇 邦之語慶州西岳仙桃山 奮有聖母祠 事載三國勝覽傳說雜出 且涉荒誕 未敢必然 而竊觀古昔帝王之生 或有異於人者虹繞 神母而生伏羲 簡狄吞卵而生契 姜嫄履跡而生棄龍交 大澤而生漢高 以東方言之 檀君降木下 六部長降山上 至如闕智朱蒙首露 或生於卵中 或出於櫝裡 其亦此類 而今之金昔李崔裴孫薛皆其後 而其始皆從天而降得姓 端倪如是奇異 曷赫居氏之由天 而化以朴爲姓者 無足怪也 朱子嘗謂無人道而生 或者以爲不祥先儒頗疑之 而張子云 天地之始 固未始先有人也 則人固有化而生者矣 天地之氣生之也 蘇氏亦曰 凡物之異於常物者 其取天地之氣 常多故其生也 或異麒麟之生異於犬羊 蛟龍之生異於魚鼈 物固有然者矣 神人之生有異於人 何足怪哉 斯言得之矣….”

- 13) 응제시 유형의 전승은 조선 초기부터 정착되어 있었다.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6월 신유 “敬承府尹卞季良上書…吾東方 檀君始祖也 盖自天而降焉 非天子分封之也 檀君之降 在唐堯之戊辰歲 迄今三千餘不異矣”; 『용비어천가』 권1, 9장 “…唐堯戊辰歲 神人降于檀木之下 國人立爲君 都平壤 號檀君…”;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서경유수관 “…唐堯戊辰歲 神人降于檀木之下 國人立爲君 都平壤 號檀君 是爲前朝鮮.”

『위서(魏書)』에 이르기를 지금부터 이천년 전 단군(檀君)이 있었는데, 아사달산(阿斯達山)에 도읍을 세우고[주(註)에 이르기를 무엽산(無葉山)이라 하였고, 혹은 백악(白岳)이라 하였는데 백주(白州) 땅에 있다. 혹은 개성 동쪽에 있는데 지금의 백악궁(白岳宮)이다]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하였는데, 요임금과 같은 때이다. 혹은 평양성(平壤城)에 도읍하여 처음 조선이라 하였고, 또 백악산(白岳山)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하는데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겠다.¹⁴⁾

이침은 『삼국유사』에 인용되어 있는 『위서』의 기록을 거의 전채하며 단군조선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고기』를 인용해 소개되었던 단군의 출생과 최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단군의 고조선 건국에 있었다. 『위서』의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고, 평양성에 첫도읍하고 백악산에 천도했다는 『고기』의 전승 역시 ‘혹운(或云)’이라는 형식으로 소개하고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서 그러하다. 『고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취신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단군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 출생과 최후 등 신화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고려 말 이색(李穡, 1328~1396)의 태도와¹⁵⁾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⁶⁾

고조선의 건국시조 단군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정립으로 인해 그 출생은 물론 최후는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했다. 신인 단군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존재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조선 초기 사료층들에게 고조선 시조 단군의 출자가 하늘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은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삼국의 시조들 역시 그러하듯이 건국시조들의 출생은 신이함을 지닌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응제시』 유형의 전승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물론 알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가 국인(國人)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는 신라의 시조 혁거세 출생담과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¹⁷⁾ 이점에서 참고할 수 있

14) 『쌍매당협장집』 권 22, 잡저, 「단군조선」.

15) 김성환, 「고려시대 단군관의 역사적 정립」, 『백산학보』, 75(백산학회, 2007), 28~29쪽.

16) 이런 인식은 1488년(성종 19) 명나라 사신과 원집사 許琮(1434~1494)의 대화에서도 보인다. 『성종실록』 권24, 성종 19년 3월 정묘 “遠接使許琮馳啓曰…(天使)曰檀君者何 (答)曰東國世傳 唐堯卽位之年甲辰歲 有神人降於檀木下 衆推以爲君 其後入阿斯達山 不知所終…”

17)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 참조.

다. 그들에게 단군의 최후 역시 점차 삼국의 건국시조와 같은 유형의 전승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 전기 사료들은 아사달산신으로서의 신비스러운 최후가 아닌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단군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강동현에서 전하고 있던 단군묘였을 것이다. 단군묘 전승을 수용한다고 할 때, 고조선은 우리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다.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사달산신으로의 최후는 쉽게 폐기될 성격의 전승이 아니었다. 이는 단군의 최후로서 전형적인 인식이었고, 단군묘 전승 역시 민간에서 전하는 언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료층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사료층들이 단군묘 전승에 대해 거의 모두 함구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단군묘 전승을 알지 못했기 보다는 황탄한 망론으로 언급조차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이 때문에 단군묘 전승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III. 『동국여지승람』의 단군 기록과 단군묘

『동국여지승람』은 이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나 『팔도지리지』와는 성격이나 내용이 크게 다르다. 앞의 두 자료와 비교하여 예속(禮俗) 관계의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신 경제나 군사 관계의 내용은 거의 취급되어 있지 않고, 각 지방의 역사적 연원이 훨씬 체계화되어 있으며, 중국측 연호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당시 지배층의 국가의식이나 역사의식과 관련이 있다.¹⁸⁾ 이런 점에서 『동국여지승람』의 단군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단군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었기 때문이다.

1481년(성종 12) 노사신(盧思愼, 1427~1498)이 올린 「진동국여지승람전(進東國輿地勝覽箋)」에서는 “조선은 하늘이 낸 나라로 단군이 개국”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¹⁹⁾ 또 경도(京都)의 연혁을 설명하는 모두에 고조선과 마한 지역이었음을 천명

18) 정두희,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하)」, 『역사학보』, 70(역사학회, 1976), 104~125쪽.

19) 『동국여지승람』, 「進東國輿地勝覽箋」 “...惟吾海隅之地 實是天作之邦 檀君啓祚於前...” 이는 서문

하고 있다.²⁰⁾ 이후 도나 군현의 연혁의 서술에서는 대부분 삼한이나 삼국시대의 영역인식에서 출발했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과 달리 고조선이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고조선으로부터의 역사적 연원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는 『동국여지승람』에서 보이는 단군 관련 기록을 통해 강동현 고적조에 실려 있는 단군묘가 이 자료의 편찬자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자들이 가지고 있던 단군 기록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는지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서 단군 관련 기록은 강화도호부, 문화현, 평양부, 영변도호부, 강동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 이래 전승의 공간적 범위가 서북한 지역이었다는데서 인식의 차이는 없다.²¹⁾ 다만 강동현의 고적소에서 단군묘가 추가되고 있음이 다를 뿐이다. 강화도호부에서는 ‘세전(世傳)’을 근거로 사단(祠壇) 조에서 단군제천처였다는 참성단과 고적소에서 단군이 세 아들에게 쌓게 하였다는 삼랑성을 소개하고 있으며,²²⁾ 문화현에서는 산천조에서 역시 ‘세전’을 근거로 단군이 첫 번째 도읍인 평양에서 이곳 백악(白岳)으로 천도하였다가 당장경으로 옮겨간 후에 다시 돌아와 신이 되었다는 전승을, 불우조에서는 옛날부터 성수초제(星宿醮祭)를 위한 제단이었던 사왕사(四王寺)를, 사묘(祠廟)조에서는 환인·환웅·단군을 모신 삼성사를, 고적조에서는 역시 ‘세전’을 근거로 단군의 도읍터였다는 장장평(莊莊坪)을 소개하고 있다.²³⁾ 또 평양부에서는 건치연혁조에서 『응제시』 유형의 전승 내용을, 군명조에서 왕검성을, 사묘조에서 단군사(檀君祠)를 소개하고 있으며,²⁴⁾ 영변대도호부에서는 고적조에서 태백산(太伯山)에 대한 서술로 천신 환인의 명에

에도 밝혀져 있다. 『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勝覽序」 참조

20) 『동국여지승람』 권1, 경도 상 참조

21) 김성환, 『고려시대 단군전승과 인식』(경인문화사, 2002) 참조

22) 『동국여지승람』 권12, 강화도호부 참조.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성환, 「고려시대 강화지역의 단군숭배」, 『대학원논문집』, 1(명지대학교, 1997); 「강화도 단군전승의 이해와 인식: 문집 자료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8(인천학연구원, 2008); 서영대, 「강화도 참성단에 대하여」, 『한국사론』, 41·42(서울대 국사학과, 1999) 참조

23) 『동국여지승람』 권42, 문화현 참조.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성환, 「고려시대 삼성사의 단군전승」, 『백산학보』, 46(백산학회, 1996); 허홍식, 「구월산 삼성당사적의 체의와 그 변화」, 『단군학연구』, 1(단군학회, 1999) 참조

24) 『동국여지승람』 권42, 평양부 참조.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성환, 「高麗時代 平壤의 檀君傳承」, 『문화사학』, 10(한국문화사학회, 1998) 참조

의한 환웅 강림과 신시에서의 인간사 주관, 신인(神因)[환인]과 웅녀의 혼인과 단군의 출생,²⁵⁾ 단군과 비서갑 하백의 딸과의 혼인으로 북부여왕 부루의 출생, 금와·대소로 이어지는 역사계승의식 등이 소개되어 있다.²⁶⁾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동현에서는 고적소에서 ‘언전’을 근거로 단군묘를 소개하고 있다.²⁷⁾

『동국여지승람』 편찬자들은 각 지역의 이런 단군전승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가 궁금하다. 조선 전기 그들이 지니고 있던 고조선에 대한 확고한 역사체계 안에서 다양한 전승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먼저 그들은 고조선의 영역으로 평안도와 황해도,²⁸⁾ 그리고 경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동국여지승람』 편찬자들은 서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강 이북 지역까지를 고조선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각 지역 전승의 공간적 범위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그 영역을 한반도에 국한시켜 이해함으로써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기도 하다.

단군의 출생에 대해서는 『응제시』 유형[평양부]과 『동국여지승람』 유형[영변대도호부]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데, 후자의 유형은 『동국여지승람』에 처음 보이는 것이다. 그중 전승의 주류는 『응제시』 유형에 두었으며, 『동국여지승람』 유형은 보조적인 위치에서 이해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현에서는 출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출생지는 영변의 태백산[묘향산]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단군의 통치와 관련한 유적으로는 앞서 편찬된 지리지의 내용을 계승하여 강화에서의 참성단과 삼랑성, 평양의 왕검성, 문화현의 장장평[당장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평양과 구월산, 당장경이 단군의 도읍지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유적들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아 『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 전승 내용의 다양성이나 풍부함을 생각할 수는 없을 듯하다. 단군숭배

25) 이에 대해 ‘神因’을 “神=桓雄이 이로 인하여”로 새겨 ‘神’을 ‘雄’의 오기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조선후기 몇몇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승의 측면에서 ‘神因’은 ‘桓因’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를 단군 출생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새로 출현한 『동국여지승람』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환, 「檀君傳承의 類型(II)」, 『사학지』, 32(단국대 사학과, 1999) 참조.

26) 『동국여지승람』 권54, 영변대도호부 참조.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성환, 「高麗時代 妙香山의 檀君傳承」, 『명지사론』, 11·12(명지사학회, 2000) 참조.

27) 『동국여지승람』 권55, 강동현 참조.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성환, 앞의 논문(2006) 참조.

28) 『동국여지승람』 권41, 황해도, “本朝鮮馬韓舊地 後爲高句麗所有…”; 권51, 평안도, “本朝鮮故地…”

와 관련해서는 문화현의 삼성사, 평양의 단군사가 파악되고 있는데, 세조의 단군전(檀君殿) 친제를 비롯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오히려 함께 모셔져 있던 동명왕에 대해서는 동명왕사(東明王祠)라는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1429년(세종 11) 처음 건립되었고 중사(中祀)에 편제되어 춘추로 강향축제(降香祝祭)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어²⁹⁾ 단군사가 부수적인 위치에 놓여있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이다.³⁰⁾ 단군의 후계에 대해서는 아들 북부여왕 부루·금와·대소로 이어지는 전승에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군이 아들로 하여금 쌓게 하였다는 삼랑성(三郎城)과 관련해서는 그 명칭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이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측하기 어렵다. 전거가 ‘언전’·‘세전’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관심인 단군의 최후에 대해서는 문화현 산천조에서 구월산을 서술하면서 이곳이 단군의 재도지인 백악, 아사달산이었음을 서술하고 단군이 당장경으로 옮겨갔다가 후에 이곳으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음을 소개하는 한편, 강동현에서는 읍치의 서쪽으로 3리 떨어진 곳에 단군묘라는 것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평양부에서 최후에 대해 서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화현이나 강동현의 전승으로 최후를 인식하고, 그곳에서 서술하는 방법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두 전승의 근거는 ‘세전’과 ‘언전’이었다. 이들은 서로 의미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를 채집하여 『동국여지승람』에 실고 있는 편찬자의 접근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

조선 전기에는 단군의 출생담으로 『응제시』 유형의 전승이 주류적인 인식으로 수용되었다. 여기에는 국조로서 단군의 출생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인식을 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평양부의 건치연혁조에 실려 있는 『응제시』 유형의 출생담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출생담이 영변도호부 고적조에 실려 있는 것과 비교된다.

단군의 최후에 대한 전승 역시 이런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

29) 『동국여지승람』 권42, 평양부 참조

30) 단군사 설치 과정과 사전에서의 제사에 대해서는 桑野榮治, 「李朝初期の祀典を通してみた檀君祭祀」, 『朝鮮學報』, 135(朝鮮學會, 1990); 桑野榮治, 「檀君祭祀儀の分析」, 『年報朝鮮學』, 1(九州大學朝鮮學研究所, 1990); 김성환, 「朝鮮初期 檀君認識」, 『明知史論』, 4(명지사학회, 1992) 참조

와 같이 문화현 산천조의 구월산에서는 그의 최후를 아사달산신으로 서술하고 있고, 강동현 고적조에서는 무덤으로 기록하고 있다. 서술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에서는 단군이 산천신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불우조에서 성수초제를 하던 고단(故壇)으로 소개되어 있는 사왕사(四王寺)가³¹⁾ 실은 단군천왕당(檀君天王堂)이었고,³²⁾ 환인·환웅·단군을 모신 삼성사는 가뭄에 기우하면 효험이 있었다는 내용에서도 그러하다.³³⁾

그러나 강동현의 단군묘는 그렇지 못했다. 고적조에 실려 있음이 우선 그렇다. 고적이란 예전부터 전하여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지만, 현재적 기능이 이미 상실된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그 존재가 독립 항목으로의 편제도 아니고, ‘대총(大塚)’이란 것에 또 다른 고적인 황제묘와 함께 소개되고 있음에서 그렇게 짐작된다. 따라서 그 위치와 410척이라는 규모만 서술될 수 있을 뿐이었다.³⁴⁾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의 강동현 고적조에서는 단군묘가 확인되지 않는다. 황제묘에 대한 자료만 확인된다. 이를 『동국여지승람』의 단군묘 기록과 비교할 때, 『세종실록』 지리지는 자료의 채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큰 무덤이 현(縣)의 북쪽 20리 떨어진 도마산(都磨山)에 있는데 둘레가 410척(尺)이다[언전(諺傳)에 황제묘(皇帝墓)라고 한다].³⁵⁾

큰 무덤[하나는 현(縣)의 서쪽 3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둘레가 410척으로 언전에 단군묘(檀君墓)라고 한다. 하나는 현의 북쪽 30리 떨어진 도마산(刀磨山)에 있는데 언전에 옛날 황제묘(皇帝墓)라고 한다].³⁶⁾

위의 두 자료는 그 내용이 착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31) 『동국여지승람』 권42, 문화현, 불우, 사왕사 참조.
 32) 『성종실록』 권13, 성종 2년 11월 병인 참조.
 33) 『동국여지승람』 권42, 문화현, 사묘, 삼성사 참조.
 34) 『동국여지승람』 권55, 강동현, 고적 “大塚[一 在縣西三里 周四百十尺 諺傳檀君墓 一 在縣北三十里 刀磨山 諺傳古皇帝墓].”
 35) 『세종실록』 권154,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강동현.
 36) 『동국여지승람』 권55, 강동현, 고적.

의하면, 강동현의 도마산(都磨山)에는 둘레 410척의 대총(大塚)이 있었는데, 황제묘로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과 30여년 후에 제작된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강동에는 2기의 고총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나는 단군묘이고, 다른 하나는 황제묘라는 것이다. 읍치에서 서쪽으로 3리 떨어진 대박산(大朴山) 아래 위치한 단군묘는 둘레가 410척이고, 황제묘는 북쪽으로 30여리 떨어진 도마산(刀磨山)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2기의 고총이 각기 단군묘와 황제묘라는 전거는 역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황제묘의 전거로 제시되고 있는 언전에 따른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황제묘의 거리가 『세종실록』 지리지의 20리에서 30리로, 도마산(都磨山)의 표기가 도마산(刀磨山)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도마산(都磨山)’과 ‘도마산(刀磨山)’의 표기 문제는 모두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생길 수 있는 차이로 생각되기 때문이다.³⁷⁾

두 자료를 검토할 때, 강동현에서는 이전부터 단군묘와 황제묘로 전해지는 대총 2기가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같이 단군묘는 읍치에서 서쪽으로 3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둘레가 410척이었다. 또 황제묘는 읍치에서 북쪽으로 20~30리 떨어진 도마산(都磨山) 또는 도마산(刀磨山)에 있었다. 이들은 강동현을 대표하는 고적이었다. 그리고 두 고적에 관한 자료들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편찬에 앞서 강동현에서 작성한 자료가 평안도 감영으로 전달되었을 것이고, 평안도 감영에서는 평안도 전역의 자료를 모아 중앙에 전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동현의 고적으로 올려진 단군묘와 황제묘에 대한 자료는 그대로 수용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단군묘가 탈락하고 황제묘만 『세종실록』 지리지의 편찬에 수용되게 되었다. 아마도 단군묘에 대한 이해의 범위와 관련이 있는 듯하고, 『응제시』 유형이 전승의 주류를 차지했다라도 아직까지 『고기』 유형의 전승에 대한 영향력 역시 유지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에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자들은 두 자료를 황제묘로 정리하면서 위치는 황제묘 전승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규모는 단군묘의 것을 서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동국여지승람』에서 황제묘의 규모에 대해 언급이 없음은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어

37) 동아일보에 의하면, 檀君墓는 漆浦里 阿達山 서방에 위치해 있는데 둘레는 410척이라고 하며, 황제묘는 馬山面 漢王里에 있고 둘레 607척 높이 126척으로 漢王墓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巡廻探訪 天惠의 沃土(2): 産物殷豐한江東」, 《동아일보》, 1926년 10월 22일 참조.

보인다. 따라서 『동국여지승람』에서 단군묘 전승이 처음 보이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³⁸⁾ 『동국여지승람』 편찬 직전에 그 전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자들의 오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편찬 당시 단군묘 전승이 전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군의 최후에 대한 아사달산신과 단군묘 전승은 이미 이전부터 전자는 문화현에서, 후자는 강동현에서 전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문화현에서 아사달산신은 조선 전기까지 지역공동체에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강동현에서 단군묘는 그렇지 못했다. 두 전승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자에게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한편으로는 강동현에서 단군묘 전승의 유구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승의 기능적 측면 역시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던 시기에 이미 사회적으로 거의 사라졌음을 뜻한다. 역사적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저 강동현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단군의 무덤으로 전해져 왔다는 내용만 회자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물론 이를 중심으로 한 전승집단도 존재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너무 오래 전의 일이었다.

IV. 『표제음주동국사략』에서의 단군 자립과 단군묘

『세종실록』 지리지를 편찬하기 위해 강동현이나 평안도에서 올린 자료에 단군묘 전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때, 이미 고려시대, 보다 소급하면 고려 전기부터 강동현에서는 단군의 최후에 대한 또 다른 전승이 전해지고 있었을 것이다.³⁹⁾ 하지만 『동국여지승람』에서 비로소 그 위치와 규모만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전승의

38) 단군을 신화적 인물로 보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대두된 것은 세종 때 단군묘가 설치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견해가 있다. 단군 무덤의 등장이 그것으로, 단군이 국조로서 제사대상이 된 이상 그의 실재성을 더욱 부각시키려면 그 치적과 아울러 유적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을 터이기 때문에 단군 무덤이 등장했다고 한다. 박혜령, 「민족주의 전통 담론과 단군의 수용」, 『실천민속학연구』, 1(실천민속학회, 1999), 123쪽. 하지만 단군묘는 세종 때 사전체계 안에서 설치된 것도 아니었고, 그 실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필요에 의해 부각된 유적도 아니다. 오히려 세종 때 단군묘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지 못했다. 廟와 墓는 다르다.

39) 김성환, 앞의 논문(2008a) 참조.

이해 폭은 넓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덤[墓 또는塚]은 사람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설문(說文)』과 『광아(廣雅)』에 따르면, ‘묘(墓)’는 ‘구(丘)’ 또는 ‘총(冢)’을 뜻하며, 진(秦) 이전에는 장사하여 봉분이 없는 것을 ‘묘’라고 했으나 한(漢)에 들어오면서부터 ‘분(墳)’과 ‘묘’의 구별이 없어졌다고 한다.⁴⁰⁾ 이런 점에서 단군묘의 존재는 신격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단군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무덤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존 또는 실재 인물을 매장한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 존재에 대한 후대의 숭배 정도에 따라 기자묘(箕子墓)와 같이 허묘나 가묘 등이 조성되기도 했다.

단군묘 역시 이 같은 이해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조선의 건국신화로 알려진 단군신화는 고조선 건국 직후 형성되어 고조선사회에서 시조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의례를 통해 계승·발전되었다. 그리고 고조선 멸망 이후에는 그 영역과 주민들을 계승한 고구려 및 고려 등에 계승되고, 당대의 사회 문화적 조건과 연계되면서 그 내용이 더해지거나 탈락되기도 했다. 단군묘 역시 그런 가운데 형성된 또 하나의 전승이라고 이해된다. 물론 전승의 형성 시기는 고조선 멸망 이후라는 것이 분명하며, 폭 넓은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일부 집단에서나마 고조선 시조로서 단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동국여지승람』에서 단군묘 전승이 채록된 이후, 이 전승은 유희령(1480~1552)의 『표제음주동국사략』에서 다시 한 번 주목된다. 그는 16세기 다른 사료들과는 달리 고조선과 단군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국통감』의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운 역사체계를 정리하려는 의도와 관련을 가진다.⁴¹⁾ 여기에서는 책의 모두에 고조선의 건국을 ‘단군자립(檀君自立)’으로 표제하여 이 시기에 저술된 다른 사찬사서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점을 볼 수 있다.⁴²⁾ 이는 자국의 역사가 중국과는 다른 ‘별건곤(別乾坤)’이었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그가 편찬했다고 하는 또 다른

40) 『說文』「土部」“墓 丘也 段玉裁注 丘自其高言 墓自其平言 渾言之則曰丘墓也” 및 『廣雅』「釋邱」“墓 冢也 王念孫疏證 蓋自秦以前 皆謂葬而無墳者爲墓 漢則墳墓通稱.”

41) 유희령의 『標題音註東國史略』 저술 배경에 대해서는 정구복, 「16~17세기 私撰史書에 대하여」, 『전북사학』, 1(전북사학회, 1977); 한영우, 「16세기 士林의 歷史敍述과 歷史認識」, 『동양학』, 10(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0) 참조.

42) 박광석, 「《標題音註東國史略》의 歷史敍述과 歷史認識」, 『역사교육논집』, 32(역사교육학회, 2004) 참조.

사서인 『동국사기(東國史記)』와 관련한 다음의 자료는 이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홍문관에서 아뢰기를 “...하문하신 『동국사기(東國史記)』는 고사(古史)에 비교한다면, 기재된 내용이 번잡하고 논의가 절충되어 있지 못하여 진강하는데 그다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은 반드시 한번 보셔서 성패의 자취를 아시는 것도 유익함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서거정(徐居正) 등이 지은 『동국통감(東國通鑑)』은 단군 이하부터는 더욱 황망하니 『고려사절요』로 진강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⁴³⁾

현전하지는 않지만, 『동국사기』는 전체 4권으로 유희령이 왕명으로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⁴⁾ 이로 미루어 이 책은 『표제음주동국사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국사기』는 고사(古史)에 비교하여 기재된 내용이 번잡하고 논의가 절충되어 있지 못하다”는 홍문관의 평은 그가 지니고 있던 역사인식이 기존의 사림들의 인식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진강을 위한 자료로 국왕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음은 주목할 대목이다.⁴⁵⁾

○ 단군의 성은 환씨(桓氏)이고 이름은 왕검(王儉)이다. 동방에는 처음에 군장(君長)이 없었는데[상성(上聲) 신인(神人)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있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평안도 영변부(寧邊府)에 있다. 지금의 묘향산(妙香山)]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내려오니 이를 신시(神市)라고 하였는데, 세상을 이롭게 하였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명칭을 단군(檀君)이라 했으며 요임금 무진년[요임금 25년]에 즉위하여 비로소 조선이라 하였다. 도읍을 평양[지금의 평양부]으로 하였다가 백악(白嶽)[지금의 문화현(文化縣)]으로 도읍을 옮겼다.

43) 『선조실록』 권56, 선조 27년 10월 을축.

44) 「유희령묘지명」 참조.

45) 홍문관의 “우리나라의 일은 반드시 한번 보셔서 성패의 자취를 아시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는 건의를 『동국사기』와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동국사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박광석, 앞의 논문 참조]. 하지만 홍문관의 이 건의는 『동국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논의의 대상이 된 『동국통감』과 『고려사절요』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국사기』에 대한 홍문관의 평가는 “古史에 비교하여 기재된 내용이 번잡하고 논의가 절충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료의 의미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비서갑(非西岬)[음갑(音甲)] 하백(河伯)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부루(夫婁)이다.
- 정사년[하(夏)나라 우왕(禹王) 원년] 우왕이 남쪽지방을 순수(巡狩)하며 제후를 도산(塗山)에서 조회(朝會)하자 부루를 보내어 조회하였다.
- 해도(海島)에 참성단(塹城壇)을 쌓고 하늘에 제사하였고, 세 아들에게 명하여 성(城)을 쌓게 하였다[지금 모두 강화부(江華府)에 있다]
- 죽음에 송양(松壤)[지금의 강동현(江東縣)]에 장례하였다. 후사(後嗣)가 기자(箕子)의 내봉(來封)을 피하여 장당경(藏唐京)[문화현에 있다]으로 도읍을 옮겼다. 전세(傳世) 무릇 1500년이다.⁴⁶⁾

위의 내용이 『표제음주동국사략』의 전조선조의 전문이다. 유희령의 고조선에 대한 이해는 그가 표현한 ‘자립’만큼 뚜렷한 것이자 역사적인 것이었다. 이전에 편찬된 어느 관찬사서나 사찬사서에서도 볼 수 없는 적극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전반에는 고조선에 대한 연대기적인 이해가 깔려있다. 이것이 유희령이 『표제음주동국사략』의 전조선조에서 인식하고 있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이 번잡하고 논의가 절충되어 있지 못하다”는 『동국사기』에 대한 홍문관의 평은 이런 것에 빗대어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서술체제는 『동국통감』에서 외기로 편제된 고조선을 역사적 사실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있어 저술을 계획하던 단계부터 의도된 것이었다고 보인다.

유희령은 단군의 성을 ‘환씨’로 파악하였다. 이는 환인의 손자로 환웅—단군으로 이어지는 부계 계보를 엄두에 둔 것이다. 환웅은 무리 3천을 데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시를 열었지만, 여기에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에서 보이는 웅녀 또는 단수신 손녀와의 혼인에 대한 전승이 확인되지 않는다. 환웅의 아들 단군은 요임금 25년 조선을 건국하고 평양에 도읍하였다가 백악으로 천도하였다. 또 비서갑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부루를 낳았는데, 우왕 원년에는 우왕의 도산 조회에 아들을 보내기도 했다. 강화에서는 참성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지내는 한편, 세 아들에게 성을 쌓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 같이 통치를 한 단군은 죽어 송양에 장례하였다. 그 후손들은 기자의 동래를 피하여 당장경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46) 『표제음주동국사략』 권1, 전조선.

고조선의 역년은 1500년이었던 것이다.

단군 역시 특정의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로 이해했다. 성이 환씨, 이름이 왕검이었음을 밝히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또 고조선을 세운 왕을 단군으로 불렀다고 서술하고 있음도 마찬가지이다. 장당경으로의 이도를 단군의 흥거 후 후사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 것과 1500년을 전세했다는 것 역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까지 단군에 대한 이해가 고조선 건국시조에 국한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이다.

전조선조에서 고조선 역사에 대한 그의 이해는 이제까지 어떤 사서보다도 완결성을 갖춘 것이었다.⁴⁷⁾ 단군의 출생(태백산)→건국 및 정도(평양)→이도(백악)→하백의 딸과 혼인 및 아들 부루 출생→우의 도산 조회에 아들 부루 파견→참성단 축조 및 제천, 삼랑성 축성→죽음 및 송양에서의 장례→후손의 장당경으로 천도와 전세 역년의 순서는 역사에 기록된 어느 왕의 기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여기에는 『삼국유사』나 『세왕운기』 수준의 신화적인 내용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구사(舊史)에 보이는 괴이한 내용은 모두 삭제한다는 저술 원칙에 따른 것이다.⁴⁸⁾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려는 유희령의 의도는 ‘환인’의 이해에서도 나타난다. 『고기』와 『본기』에는 환인을 제석 혹은 상제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유희령은 이를 ‘신인(神人)’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점은 그가 곰·호랑이·단수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군신화뿐만 아니라 환인의 천신 또는 제석, 상제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 역시 부정적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조선시대 사인들에게 폭넓게 이해되고 있던 신인(神人)을 주체로 한 『응제시』 유형을 환인→환웅→단군을 계보로 하는 『고기』 유형에 확대 수용하였다. 환인을 신인(神人)으로 적극 해석함으로써 신화적인 내용으로 황탄하기 그지없던 고조선의 건국과정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환웅이 신사에서 재세이화하였다는 내용 역시 전체 문맥에서는 역사적 사실로 파악된다.

단군을 역사적 존재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는 단군의 죽음과 송양[강동현]에

47) 조선 전기 단군묘 전승은 『동국여지승람』을 제외하고 權文海(1534~1591)의 『大東韻府群玉』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따른 것이었다. 『대동운부군옥』 권14, 去聲 遇 墓, 「檀君墓」 “江東縣西有大塚 周四百十尺 諺傳檀君墓[勝覽].”

48) 『표제음주동국사략』, 凡例 “…… 高句麗東明 新羅赫居世 其他脫解闕智首露之生 皆怪□□舊史□□ 今皆削之……”

서의 장례에 대한 사실의 기록에서 절정을 이룬다. 고조선과 시조 단군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성이 엿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아사달산신으로의 좌정이라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등의 견해를 버리고, 그 죽음과 송양(松壤)에서의 장례만을 실음으로서 역사적 존재로서 단군의 실존을 사실화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특히 아사달산신으로의 기존 이해를 제주 형식으로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음에서 그의 의도를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송양에서의 장례로 기록된 단군묘 전승은 이제까지 『동국여지승람』에서 강동현의 고적으로 간략하게 소개되었던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국여지승람』 편찬자들 역시 단군의 최후를 아사달산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희령은 또 기자의 내봉(來封)으로 인한 장당경(藏唐京)으로의 이도를 단군이 아닌 그 후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해하고 있다. 사서에서 왕의 죽음과 장례 사실을 기록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단군의 죽음을 ‘홍(薨)’으로 표현하고, 묘의 존재를 언급하는 대신 송양에서의 장례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도 그러하고, 전세 1500년도 그렇다. 전세 1500년의 이해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의 어국 1500년을 염두에 둔 것이다.⁴⁹⁾ 이렇게 함으로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제까지 단군의 최후에 대한 전형이었던 아사달산신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도 도모할 수 있었다. 단군이 그 후세들에 의해 시조묘(始祖廟)에 봉안되었고, 이것이 후대에 산신신앙과 결합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표제음주동국사략』의 단군 관련 기록에서 유희령이 참고한 자료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삼국 이전은 여러 사서에서 서술된 것을 따른다”는 것과 음의(音義)는 『운회군옥(韻會群玉)』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군현의 연혁·개명·산천·관할에 대한 내용은 『동국여지승람』에 의거하여 참고한다는 범례의 내용을⁵⁰⁾ 참고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표제음주동국사략』의 단군 관련

49) 아사달산신이 된 단군의 享壽가 1048년이었다는 『고기』의 기록과 관련하여 그는 『동국통감』에 인용되어 있는 ‘傳世歷年之壽’이라는 권근의 설을 소개하고 있다. 『표제음주동국사략』 권1, 전조선, 史臣曰 참조. 고조선의 건국이 중국과 대등한 출발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단군 관련 고적을 한반도 안으로 비정한 『동국통감』의 사론을 실은 것에 대해서는 崔溥를 비롯한 사립의 역사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박광석, 앞의 논문, 274쪽.

50) 『표제음주동국사략』, 凡例 “…… 三國以前 □□□□□□□□採諸書作紀 今從之…… 音義 並依韻會群玉 付書其州縣沿革改名山川管轄 依輿地勝覽 參考□編.”

기록은 민간전승자료나 설화에 근거하여 상고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다는 견해가 있다.⁵¹⁾ 민간의 관련 전승을 채록하려고 노력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성씨를 환씨로, 이름을 왕검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해 등에서 그렇다.

‘단군자립’의 내용을 볼 때, 유희령에게 『삼국유사』·『세종실록』 지리지·『고려사』·『역대세년가』·『동국여지승람』 등이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있음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그것을 통해 고조선 역사의 전반에 대한 복원을 꾀하였다. 민간에서 채록한 전승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제음주동국사략』의 ‘단군자립’조에서 주 자료로 활용된 것은 『동국여지승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범례에 나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태백산·평양·백악·참성단·삼랑성·송양·장당경 등의 단군 관련 지명이 『동국여지승람』을 따르고 있고, 그 대부분의 내용 역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동에서의 단군 장례 기록은 별도의 다른 전승이나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닌 『동국여지승람』의 전승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비판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구려 건국과정에서 주몽과 영역 다툼을 했던 비류국의 송양을 단군의 후사로 이해할 수 있는⁵²⁾ 인식의 확대 역시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단군전승의 주류가 『고기』·『본기』 유형에서 『응제시』 유형으로 바뀌었고, 『고기』 유형은 『응제시』 유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단군의 최후가 죽음과 묘의 조성으로 마무리된 단군묘 전승은 그 형성 시기와는 별개로 역사적 존재로서의 단군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진 시기에 주목이 가능했고, 이런 점에서 『응제시』 유형의 전승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고조선의 시조 단군이 국조로 자리하여 역사적 위상을 되찾으면서 출생

51) 정구복, 앞의 논문(1977); 정구복, 「標題音註東國史略 해제」, 『校勘 標題音註東國史略』(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박광석, 앞의 논문 참조.

52)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한사군급열국기 참조.

에 대해 황당한 전승을 전하던 『고기』·『본기』 유형의 전승은 식자층에게 비판되기 시작했다. 산신으로의 좌정에서는 더 이상 건국시조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역사적 기능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 같은 비판은 보다 합리적인 전승의 이해를 위한 결과를 낳게 했고, 단군묘 전승은 이런 배경에서 주목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사달산신으로의 최후는 쉽게 폐기될 성격의 전승이 아니었다. 이는 단군의 최후로서 전형적인 인식이었고, 단군묘 전승 역시 민간에서 전하는 언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류층들에게 쉽게 수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시기 사류층들이 이 전승에 대해 거의 모두 함구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단군묘 전승을 알지 못했기 보다는 황당한 망론으로 언급조차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동국여지승람』 편찬자들은 평안도와 황해도, 한양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상고사의 영역을 한반도에 국한시켰다는 인식론에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단군의 출생 전승에 대해서는 『응제시』 유형[평양부]을, 출생지는 영변의 태백산[묘향산]으로 파악하였고, 단군의 통치와 관련한 유적으로는 강화의 참성단과 삼랑성, 평양의 왕검성, 문화현의 구월산과 장장평[당장경] 등이 소개하고 있다. 후계에 대해서는 아들 북부여왕 부루·금와·대소로 이어지는 전승에 주목하였고, 단군숭배와 관련해서는 문화현의 삼성사, 평양의 단군사를 파악하고 있다.

단군의 최후에 대해서는 문화현 산천조에서 구월산이 단군의 재도지인 백악, 아사달산이었음을 밝히고 단군이 당장경으로 옮겨갔다가 후에 이곳으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음을 소개하는 한편, 강동현 고적조에서는 읍치의 서쪽으로 3리 떨어진 곳에 단군묘라는 것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두 전승의 근거는 ‘세전’과 ‘언전’이었다. 하지만 두 전승의 의미는 사뭇 다르다. 전자는 단군이 문화현의 산천신으로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현재적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강동현 고적조에서 단군묘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채집 과정에서의 오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황제묘 기록 내용이 『동국여지승람』의 단군묘와 황제묘의 위치와 규모를 함께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렇게 추측된다. 그 이유에 단군묘에 대한 이해의 범위와

관련이 있는 듯하고, 『응제시』 유형이 전승의 주류를 차지했다더라도 『고기』 유형의 전승에 대한 영향력 역시 유지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편찬 과정에서 단군묘 전승이 채록되었다면, 이는 강동현에서 단군묘 전승의 유구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승의 기능적 측면이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던 시기에도 이미 사라졌음을 뜻하기도 한다.

단군묘 전승은 『동국여지승람』에서 처음 주목된 이후, 이는 유희령의 『표제음주동국사략』에서 다시 한 번 주목된다. 그는 책의 모두에 고조선의 건국을 ‘단군 자립’으로 표제하여 자국의 역사가 중국과는 다른 ‘별건곤’이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의 고조선에 대한 서술에는 연대기적인 이해가 깔려있다. 이것이 유희령이 『표제음주동국사략』의 전조선조에서 인식하고 있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동국통감』에서 외기로 편재된 고조선을 역사적 사실을 수용하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있어 저술을 계획하던 단계부터 의도된 것이었다고 보인다.

전조선조에서 고조선 역사에 대한 유희령의 이해는 이제까지 어떤 사서보다도 완결성을 갖춘 것이었다. 여기에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수준의 신화적인 내용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구사(舊史)에 보이는 괴이한 내용은 모두 삭제한다는 저술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단군을 역사적 존재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는 단군의 죽음과 송양[강동현]에서의 장례에 대한 사실의 기록에서 절정을 이룬다. 고조선과 시조 단군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성이 엿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아사달산신으로의 기존 이해를 제주 형식으로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음에서 그 의도를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 『대동운부군옥』; 『동국여지승람』;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표제음주동국사략』; 『해동금석원』; 『태종실록』; 『세종실록』; 『성종실록』; 『선조실록』; 『대은선생실기』; 『관암전서』; 『국담집』; 『동국역대총목』; 『동사강목』; 『쌍매당협장집』; 『약산만고』; 『양촌집』; 『용비어천가』.
 <<동아일보>>.

- 김성환, 『고려시대 단군전승과 인식』. 경인문화사, 2002.
- 김성환, 「朝鮮初期 檀君認識」. 『明知史論』 4, 명지사학회, 1992, 103~135쪽.
- 김성환, 「고려시대 강화지역의 단군숭배」. 『대학원논문집』 1, 명지대대학원, 1997.
- 김성환, 「고려시대 삼성사의 단군전승」. 『백산학보』 46, 백산학회, 1996.
- 김성환, 「高麗時代 平壤의 檀君傳承」. 『문화사학』 10, 한국문화사학회, 1998, 123~142쪽.
- 김성환, 「檀君傳承의 類型(II)」. 『사학지』 32, 단국대 사학과, 1999, 85~112쪽.
- 김성환, 「高麗時代 妙香山의 檀君傳承」. 『명지사론』 11·12, 명지사학회, 2000, 289~314쪽.
- 김성환, 「朝鮮時代 檀君墓에 관한 認識」. 『한국사학사학보』 13, 한국사학사학회, 2006, 35~76쪽.
- 김성환, 「고려시대 단군관의 역사적 정립」. 『백산학보』 75, 백산학회, 2007, 313~345쪽.
- 김성환, 「일제강점기 「단군릉기적비」의 건립과 단군전승」. 『사학연구』 86, 한국사학회, 2007, 171~209쪽.
- 김성환, 「檀君傳承과 檀君墓: 고려시대 단군묘 전승에 대한 가능성 모색」. 『역사민속학』 29,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a, 7~37쪽.
- 김성환, 「조선 후기의 단군묘 인식」. 『단군학연구』 18, 단군학회, 2008b, 5~36쪽.
- 김성환, 「강화도 단군전승의 이해와 인식: 문집 자료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8, 인천학연구원, 2008c, 119~157쪽.
- 박광석, 「〈標題音註東國史略〉의 歷史敍述과 歷史認識」. 『역사교육논집』 32, 역사교육학회, 2004, 235~290쪽.
- 박혜령, 「민족주의 전통담론과 단군의 수용」. 『실천민속학연구』1, 실천민속학회, 1999, 123쪽.
- 서영대, 「강화도 참성단에 대하여」. 『한국사론』 41·42, 서울대 국사학과, 1999, 205~239쪽.
- 임재해, 「산신설화의 전승양상과 산신숭배의 문화」. 『비교민속학』 29, 한국비교민속학회, 2005, 379~423쪽.
- 정구복, 「16~17세기 私撰史書에 대하여」. 『전북사학』 1, 전북사학회, 1977, 45~95쪽.
- 정구복, 「標題音註東國史略 해제」. 『校勘 標題音註東國史略』.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정두희,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하)」. 『역사학보』 70, 역사학회, 1976, 89~127쪽.
- 한영우, 「16세기 士林의 歷史敍述과 歷史認識」. 『동양학』 10,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0, 145~183쪽.
- 허홍식, 「구월산 삼성당사적의 제의와 그 변화」. 『단군학연구』 1, 단군학회, 1999.
- 桑野榮治, 「李朝初期の祀典を通してみた檀君祭祀」. 『朝鮮學報』 135, 朝鮮學會, 1990.
- 桑野榮治, 「檀君祭祀儀の分析」. 『年報朝鮮學』 1. 九州大學朝鮮學研究所, 1990.

국문 요약

이 글에서는 조선 전기 강동현의 단군묘 전승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 건국직후부터 조선시대 전승의 전형으로 등장한 『응제시』 유형과 단군묘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 유형은 이전의 유형보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단군을 이해하려고 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단군묘 전승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단군묘 전승이 처음 보이는 『동국여지승람』에서 단군과 관련한 기록을 분석하여 그 편찬자들의 단군인식을 정리한 후, 이곳에서의 단군묘 기록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세종실록』 지리지의 황제묘(皇帝墓) 기록이 채록과정에서 오류로 단군묘 전승을 누락시키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문화현에서의 구월산, 삼성사, 당장경 등의 전승과 강동현에서의 단군묘 전승이 모두 ‘세전’과 ‘연전’에 근거하고 있지만, 의미는 사뭇 다르다. 전자는 단군이 문화현의 산천신으로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현재적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조선 전기 사서로서는 처음으로 단군묘 전승을 단군의 최후로 적극 인식하고 있는 유희령(柳希齡)의 『표제음주동국사략(標題音註東國史略)』을 통해 ‘단군자립(檀君自立)’의 항목에서 단군묘가 지니는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자국의 역사가 중국과는 다른 ‘별건곤’이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의 고조선에 대한 서술에는 연대기적인 이해가 깔려있다. 이 자료는 고조선 역사를 단군을 중심으로 연대기적인 방법으로 이해한 현전하는 최고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특히 단군을 역사적 존재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는 단군의 죽음과 송양[강동현]에서의 장례에 대한 사실의 기록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의 단군묘 전승에 대한 이해의 모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투고일 : 2008. 12. 30. ● 수정일 : 2009. 3. 5. ● 게재확정일 : 2009. 3. 12.
- 주제어(keyword) : 단군(Tangun), 단군묘(Tangun's Tomb), 단군전승(Tangun Transmission), 『동국여지승람』(Dongkukyeojisungram), 『표제음주동국사략』(Pyojeunju-dongkuksaryack).